

P

anelist

The “*Kikyo* (Homecomings)” of the Korean-Chinese to South Korea: How Is Their Identity Reconstructed?

ZHAO, Guihua

Assistant Research Fellow, Center for Asian and Pacific Studies, Seik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the identity of migrants is transformed after returning to their homeland. I do this by examining the reconstructing process of the identity of the Korean-Chinese who moved to South Korea for temporal/eternal settlement. These Korean-Chinese, wanting their peace of mind that is rarely felt in China, migrate to South Korea where either they or their ancestors ever lived but left long time ago. I call this type of migration “*Kikyo* (Homecomings)”.

This “*Kikyo*” from China to South Korea officially started in 1988, when the Seoul Olympic Game was held. From then the number of the migrants grew constantly and reached 383,077 in March 2011. In South Korea there are various terms which express those Korean-Chinese migrants: “foreign workers”, “*Chosun-zok* (the Korean-Chinese)”, “Chinese”, and “*Dongpo* (Compatriot)”. Whereas “*Dongpo*” implies that those migrants are part of “us” South Koreans, they are considered as “Others” when the words “*Chosun-zok*” or “Chinese” are used to refer to them.

This article finds that, while South Korean society excludes the blue-collar Korean-Chinese socially as “foreign workers” and “Chinese”, it sees those with high-level education as “*Dongpo*” and “*Hangugin*(South Korean)”, giving them more opportunities to move up the social ladder. However, many of those Korean-Chinese with high-level education express themselves as “Chinese” or “*Chosun-zok*,” suggesting that, even though some of them gain benefits from such an identity given by their host society, they do not always passively accept the identity.

Many Korean-Chinese migrants come to know after their “*Kikyo*” that their identity cannot be the same forever. For a Korean-Chinese, who has multiple identities, her/his homeland may change and the meaning of her/his “*Kikyo*” may also change in accordance with which identity is intensified in her/him in each particular moment. Man’s identity always changes and cannot be stable; it is 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constantly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in society.

‘귀향’ 과 정체성의 재정립

—한국의 젊은 고학력 조선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귀화
세이케이대학
아시아태평양양연구센터

1. 들어가며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인구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과거에 출생지를 떠나 식민지 혹은 외국에 이주한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귀향’ 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식민지 시대에서는 종주국이 주도하는 인구 이동이 주류였지만¹⁾ 탈식민지화를 겪고 있는 현재는 취업과 결혼, 유학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주도적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최근 일본에서 타국에 이주했다가 고국으로 재이동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귀환(歸還)’이다. ‘귀환(歸還,return)’에 대해 오가와(大川,2010)는 “단순히 ‘되돌아오다(戻る)’라는 말로서 (‘귀국(자)’이라는 표현보다)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p.30)라고 언급하였으며, ‘귀환이민(歸還移民)’에 대해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본국²⁾의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를 목적으로 한 영구적인 귀환”(p.31)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귀향(歸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귀향’이란, “평온함을 기대하며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출생한 지역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이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귀향’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중국 조선족(이하 ‘조선족’으로 표기함) 사례는 그들이 한국³⁾으로 ‘귀향’ 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바라는 것과 동시에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을 바라며 돌아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족들이 ‘귀향’한 한국에서 어떤 사회적 수용과 배제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과 현지 한국인들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그러한 경계 속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가를 젊은 고학력 조선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조선족의 개념

조선족이란 19세기 초기부터 한반도에서 수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이주한 조선인 및 그들의 자손을 말한다. 그들은 중국 국민으로서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소수민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2000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조선족 인구는

1) 大川真由子 (2010).『歸還移民の人類学—アフリカ系オマーン人の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귀환이민의 인류학-아프리카계 오만인의 에스닉 아이덴티티). 明石書店, 20 쪽.

2) 오가와(大川, 2010)는 이주의 기점이 된 나라, 이민을 송출한 나라를 ‘本国’이라고 언급하였다.

3) 중국 조선족 가운데 북한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4)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계국 제 5 차 인구 통계자료

<http://www.stats.gov.cn/tjsj/ndsj/renkoupuocha/2000puocha/html/t0201.htm> (엑세스 : 2011년 6월 14일)

192 만 3,842 명이다⁵⁾.

조선족은 중국에 살면서도 한반도⁶⁾ 출신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해 왔다. 그 배경에는 조선족 자녀들에게 중국의 공식 언어인 한어(漢語)와 함께 조선족의 민족 언어인 조선어(朝鮮語)⁷⁾를 가르치는 이중 언어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공교육기관인 조선족학교에서 이러한 이중 언어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조선족들은 중국인이라는 국민적 귀속의식과 조선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서로 상반되지 않으면서도 복합적으로 갖게 되었다⁸⁾.

조선족들의 민족 정체성은 그들이 조선족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그 혈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의 집거지역에 자치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조선족은 연변조선족자치주나 동북부에 있는 조선족 자치현, 자치향 등 조선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그들은 조선족의 음식, 의상, 관혼상제 등 생활습관을 유지해 왔으며, 조선어를 공통언어로 인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왔다. 그리고 통계를 찾기 힘들지만, 조선족 1 세에서 3 세까지 조선족 간의 결혼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인식이 조선족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조선족들이 혈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이며,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국경 맞은 편에 있는 한국 및 북한의 형제와 친척들과 한민족이라는 일체감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제 2 차세계대전 이후부터 1992 년 중한수교까지의 40 여 년 동안 많은 조선족들은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보도 얻기 힘들었다. 중한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조선족은 한국에 ‘귀향’ 하여 형제와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3. ‘귀향’ 한 한국에서의 사회적 배제와 수용

이 장에서는 먼저 한국에 ‘귀향’ 한 조선족의 사회적 입장을 그들에 대한 호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조선어와 한국어의 언어마찰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어떤 경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서 조선족과 관련된 호칭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 년 3 월 31 일 한국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현재 38 만 3,077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⁹⁾.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6 년 서울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과 1988 년 올림픽 등 일련의 스포츠행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부터였다. 1986 년부터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은 조선족을 상대로 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였는데 이것을 중국 현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많은 친척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간단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이들의 한국방문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이때 친척들의 초청으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을

5) 본 논문에서는 한국, 북한 등의 국가명을 사용하며 한국과 북한을 총칭하여 한반도라고 한다.

6) 본 논문에서 중국에서 조선족이 사용하는 민족 언어를 ‘조선어’라고 하며, 한국의 표준국어를 ‘한국어’라고 한다.

7) 조귀화 (2009). 세계화 시대의 소수민족교육의 변화 : 중국 조선족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인류학연구**, 12 (2), 172-182 쪽.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ndex.do?strOrgGbnCd=104000> (액세스 : 2011 년 6 월 10 일)

9) 권태환 · 박광성 (2005). 한국 조선족 노동자 집단의 형성—심층면적 자료의 분석. **중국조선족사회의 변화—1990 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출판부, 151-152 쪽.

방문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사람들이 되었다⁹⁾. 이렇게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동은 친척방문이라는 ‘귀향’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 한국정부는 조선족 친척방문자의 나이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체류기간도 최대 90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귀향’이 순조롭지 않게 되었다. 한국의 입국 제한이 심해지면서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한약재를 한국에 가져다 팔거나 한국 취업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불법판매와 불법체류하는 조선족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정부는 조선족에 대한 입국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체류기간도 더 까다롭게 제한하였다. 한국 언론에서도 체류자격 위반 문제로 단속 대상이 된 조선족에 관한 보도가 많아졌으며, 조선족은 한국사회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라는 인식을 받기 시작하였다.

조선족들은 한국 내 합법적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단체(NGO) 등과 연합하여 단속투쟁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조선족교회 방문을 기점으로 2007년에 비로소 방문취업제가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조선족의 한국 입국 제한이 많이 완화되었고,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되었다. 한국에 친척이 없는 무연고 조선족의 한국 입국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불법체류자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합법체류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부터 한국 언론에서 ‘조선족불법체류자’나 ‘조선족’이란 용어 대신 ‘중국 동포’ 혹은 ‘한국계 조선족’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호칭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선족’, ‘교포’,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인’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호칭은 ‘조선족’과 ‘교포’이다. ‘조선족’은 학술용어로 많이 사용되지만 사회적으로는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국 동포’라는 호칭은 재외 동포들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시민단체들과 비슷한 경향을 가진 일부 학자들, 그리고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며¹⁰⁾, ‘한국계 중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자료에서 조선족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조선족’과 ‘중국 동포’라는 말을 어떻게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선족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서울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중국에서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와서 사실 한국사회에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거죠. ‘교포’라는 말을 많이 썼다가 재외동포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개념이 ‘교포’ 쪽이 아니라 ‘동포’ 쪽으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로 부를 때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중국 동포’는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조선족’은 이들을 낮춰보거나 이질감 있게 보는 그런 뜻이 있는거죠. (2009. 8. 6)

이와 같이 ‘동포’라는 말은 한국인들이 ‘우리’의 하나로 수용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반대로 ‘조선족’이라는 말은 이들을 ‘타자(他者)’로 인식하고 배제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1월 21일자의 연합뉴스에는 “‘조선족’ 대신 ‘중국 동포’로

10) 박광성(2006). 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노동력이동과 사회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박사학위논문, 172쪽.

말하세요”¹¹⁾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국립국어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 중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말을 근절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조선족’과 ‘중국 동포’라는 언어 표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국립국어원은)‘조선족’, ‘미망인’ 등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이 때에 따라서는 상대를 차별하는 의미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른 말을 쓰도록 제안했다. 특히 ‘조선족’이란 말은 중국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다른 민족과 구분할 때 쓰는 말로 ‘중국동포’나 ‘재중동포’가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자신들을 가리키는 ‘조선족’이란 명칭을 거의 거부감 없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조선족’이란 말이 차별적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거부감을 느낀다. 그 결과 그들의 정체성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족 중에 ‘교포’ 혹은 ‘동포’로 불러 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교포’나 ‘동포’대신 차별적 언어인 ‘조선족’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인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두번 째 과제, 즉 조선족이 한국에서 어떤 언어마찰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 ‘귀향’한 조선족 중에는 중국에서 이중 언어교육(한어와 조선어)을 받았고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해 온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동했을 때 언어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유지해 온 ‘민족어’는 그들이 ‘귀향’한 한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수용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한국인과 다름”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했다.

조선족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던 당시 경상도, 평안도, 함경도등의 출신이 많았다. 그들은 이주전에 사용했던 조선어를 이주지역에서도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이주 초기부터 방언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중국어의 어휘나 언어 표현 등의 영향을 받아 현재 중국 조선어를 형성하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국교가 단절된 40여 년 동안(제2차세계대전후~1992년) 한국어는 국내에서 통일(여러 방언의 통일)과정을 겪었다. 더 나아가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의 영향을 받아 어휘뿐만 아니라 문자의 표기나 엑센트에 있어서 유행에 민감한 언어로 변화하였다. 한국어는 사회적인 상하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언어 표현이 발달했다는 면에서 조선족의 언어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에는 규범문법 용어와 규범문법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¹²⁾.

미야오카(宮岡, 2001)는 “같은 민족 내에서도 방언과 같이 사회나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어휘나 언어표현은 때로 은어나 비밀스러운 종교집단처럼 매력적인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시키며, 각각의 집단을 집대성하는 작용을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사회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언어나 방언은 사회적 차별이나 심리적 콤플렉스를 발생시키는 기능이 있다”¹³⁾고 지적하였다.

11) 연합뉴스. 2010년 1월 21일자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3084804>(엑세스 : 2011년 6월 20일)

12) 이주행 (2008). 중국 조선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규범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조선)언어문학연구 국제학술

회의 논문집. 민족출판사, 65쪽.

13) 宮岡伯人(2001). 文化のしくみと言語のはたらき(문화구조와 언어의 작용). 宮岡伯人編『言語人類学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36-37쪽.

조선족 가운데 공식적인 장소에서 조선어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와 스스로 ‘조선족’임을 숨기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완벽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잘 안된다. 옛날부터 쓰던 조선어 사투리가 계속 남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적인 장소에서는 조선어 ‘사투리’를 꺼리낌 없이 사용하지만, 공적인 장소에서는 조선어 ‘사투리’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기 위해 애를 쓰는 조선족들이 연령과 학력에 상관 없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특히 자녀를 위해 조선어 ‘사투리’를 고치고 싶어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어와 한국어 사이의 언어 마찰은 한국으로의 이주 초기에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조선족’이라는 사회적 카테고리가 뚜렷해졌다. 반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이들의 한국어 사용 기회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조선어와 조선어 ‘사투리’ 사용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어와 한국어 사이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조선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민족어’를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어 유지에 대한 조선족의 의식 변화는 그들의 차세대가 조선어를 습득하는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고학력 조선족의 정체성 재정립

한국 사회에서는 3D 업종과 같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조선족을 ‘외국인노동자’ 혹은 ‘중국인’으로 분류함으로써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조선족에 대해서는 ‘동포’ 혹은 ‘한국인’으로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때 ‘한국인’이라는 말은, 국민적 귀속의식을 의미한다기보다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귀속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어와 조선족의 전통문화를 유지해온 조선족, 그 중에서도 조선어를 제1언어로 사용해 온 1세대와 2세대가 ‘귀향’한 한국에서 ‘중국인’으로 대우받으며 배제당하는 경험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상상해 온 ‘고향’의 이미지를 붕괴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조선족들은 자신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젊은 고학력 조선족들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력이 사람들의 소득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이므로¹⁴⁾, 고학력자는 고소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선족 중에서도 고학력자는 한국에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비교적 용이하며, 대기업이나 대학교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 한국 사회는 그들에 대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조선족들에게 보내는 사회적 편견과 배타적 시선 대신 긍정적 시선과 수용적 태도를 보여 준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시선과 태도는 고학력 조선족들의 정체성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젊은 고학력 조선족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S 씨, 여성, 30대, 조선족 3세, 전문직,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

한국에 유학 온 후부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서 한

14) 尹敬勳 (2010). 『韓國の教育格差と教育政策：韓國の社会教育・生涯教育政策の歴史的展開と構造的特質』 (한국의 교육격차와 교육정책: 한국의 사회교육·평생교육정책의 역사 전개와 구조 특성). 大学教育出版, 6 쪽.

3년까지는 ‘난 중국사람이야’ 하고 나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난 근데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중국인도 아닌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한 4~5 년째 되면서 슬슬 “내가 중국인인가? 난 한국인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런 걸 느껴요. 저는 이제는 사고방식이라든가 생활습관 이런 것이 다 한국사람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과)결혼을 하면서 그 생각이 더 드는 거 같아요. (S 씨, 2007.3.6)

S 씨는 중국에 있을 때 자신이 중국 국민인 동시에 소수 민족인 조선족이라는 두가지 귀속의식을 서로 상충됨 없이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 온 이후, 자신이 ‘중국인’ 인지 아니면 ‘한국인’ 인지에 대한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이 집거하는 마을에서 생활했으며 한족과는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다. 생활방식도 ‘중국식’ 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조선족 특유의 생활방식을 유지해 왔다. 또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생활을 하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이미 ‘한국식’ 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그녀의 귀속의식도 ‘중국인’ 에서 ‘한국인’ 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S 씨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변화하였다. 인터뷰 후 3년이 경과한 2010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위 사람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신을 외국인으로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면 민족이 조선족인 중국인으로 생각하죠. 나중에 애 넣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한국인이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단지 한국인들과 서로 배우면서 그들에게 저 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조선족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어요. (S 씨, 2010.10.22)

이 사례에서는 고학력자인 S 씨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 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생활습관이 ‘한국인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 고 했던 그녀가 다시 자신을 ‘외국인’ 이며 ‘조선족’, 그리고 ‘중국인’ 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S 씨가 “나같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조선족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다” 고 한 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부정적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S 씨가 자신을 ‘중국인’ 과 ‘조선족’ 으로 인식하는 것이 강해진 것은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 경험하는 편견과 배타적 태도에 대한 일종의 저항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조선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S 씨가 선택한 전략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한국사회에서 인정 받는 것이었다.

아래의 고학력 조선족 사례에서도 주변의 한국인들이 자신을 ‘한국인’ 으로 바라보지만 본인은 ‘조선족’ 으로서의 정체성을 집착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사례 2> J 씨, 남성, 30 대, 조선족 3 세, 대기업 사원, 한국에서 석사학위 취득

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많은 다른 부서 사람들이 저보고 “왜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나” 고 묻더라고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이번에는 또 “왜 한국말을 그렇게 잘 하나” 고 그러더라고요. 주위 한국인들은 저를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인들을 만나면 “넌 중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업무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하니까 그런것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조선족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국적을 바꾼다고 그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는 중국에 가서 살려고요. 북경에 집도 사냈어요. (J 씨, 2010.1.20)

위의 두 고학력 조선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타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편견과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을 일컫는 용어라기보다 ‘민족’의 동질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에서 사용하는 ‘중국 조선족’이라는 명칭처럼 ‘한민족’을 의미하는 ‘한국인’과 중국 국민을 가리키는 ‘중국인’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족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위의 두 사례처럼 협조와 저항의 형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저항의식은 학력이 높지 않은 조선족들 중에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고학력자와 다른 점은, 그들 스스로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을 ‘중국인’ 혹은 ‘조선족’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 긍정을 하려는 데 있다.

이런 타협과 저항에 대해 타나베(田辺, 2003)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체성이란 커뮤니티의 이념과 규칙, 혹은 그 중심이 되는 모델에 대한 일방적인 동일화 혹은 협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중심성에 대한 저항과 타협, 혹은 교섭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하여 정체성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여기에서 ‘커뮤니티의 이념과 규칙, 혹은 그 중심이 되는 모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논의가 요구되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5. 글을 맺으며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이면에는 ‘귀향’의 평온함을 기대하는 것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귀향’한 한국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귀향’의 평온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언어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 알아 보았다. 조선족은 자신들이 중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 온 조선어가 한국에서 그들이 ‘한국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함으로 인해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조선족’, ‘교포’, ‘중국 동포’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어와 분류가 조선족에 대한 배제나 수용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조선족’이라는 호칭은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로 거부감 없이 사용해 왔지만, 한국에서 이 호칭이 차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귀향’한 한국에서 ‘중국인’으로 배제당한 경험을 통해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온 ‘고향’의 이미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족들은 자신이 어디에 귀속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중

국인’ 인가 ‘한국인’ 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 젊은 고학력 조선족들은 ‘중국인’과 ‘조선족’이란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스스로 이런 차별적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정체성 저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젊은 고학력 조선족들은 한국에 ‘귀향’함으로 인해 정체성은 항상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고학력 조선족은 자신의 정체성이 국제적 이동에 의해 변화한다는 점에 대해

15) 田辺繁治 (2003). 『生き方の人類学—実践とは何か』 (생활방식의 인류학—실천이란 무엇인가). 講談社. 222 쪽.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자신이 ‘중국인’ 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중국에 가면 자신이 소수민족이라는 ‘조선족’ 혹은 ‘한국인’ 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것 같아요 ”.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조선족에게 있어서는 개별적 정체성의 강도와 방향에 따라 그들이 ‘귀향’ 하는 장소와 또한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립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